우수작

제12회
좋은 방송을 위한
시민의 비평상

Best 파트너의 세상을 위하여

이유빈

최근 2024 파리 올림픽으로 발생한 공백에도 불구하고 순간 시청률 20퍼센트를 넘으며 순항 중인 드라마가 있으니, 바로 SBS의 금토 드라마 〈굿파트너〉다. 〈굿파트너〉는 실제 이혼 전문 변호사가 극본을 맡아 법정 드라마의 핵심인 전문성과 현실성을 잡아내는 데 성공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주연 배우로 장나라가 출연하는 등 드라마의 주축으로 안정적인 연기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굿파트너〉는 메인 홍보용 포스터에서 볼 수 있듯이, 스타 변호사인 차은경과 신입 변호사인 한유리가 투 톱으로 나오며 그들의 일과 삶을 모두 비추고자 하는 오피스 드라마다. 대척되는 특징이 많은 두 인물로 인해 드라마는 첫 회부터 흥미진진한 스토리라인으로 시청자를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해당 드라마는 총 16부작 예정으로 현재 종영 전이다. 그러나 회차를 거듭할수록 폭발적인 시청률만큼이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비판의 지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드라마의 내적, 외적

으로 개선이 필요한 점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첫째, 〈굿파트너〉는 진부하고 구시대적인 가치관을 따른다. 〈굿파트너〉는 당초 스타 이혼 변호사의 이혼 쇼를 예고하며 드라마 전반부의 반전과 긴장감을 충족시켰다. 한 예로 한유리가 차은경에게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리는 장면이 있는데, 차은경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반전을 통해 이 캐릭터의 성격과 욕망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그의 '스타'적 속성이 본인의 이혼에는 어떤 카타르시스로 작용할지 궁금케 한다.

그러나 진행되는 스토리는 '스타'와 '쇼'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도를 한 남편보다는 내연녀와의 갈등을 주 소재로 삼아 내연녀를 징벌하는 과정을 앞세워 보여준다. 또한 남편의 불륜 계기를 설득하고자 차은경이 '아내' 혹은 '엄마'로서 가정에 헌신하지 않아 가정 붕괴를 야기했다는 구시대적 도식을 그대로 차용함으로써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장려되는 현대 사회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흔히 입시생을 둔 가정에서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 열성적인 엄마와 돈 많고 무관심한 아빠가 필요하다는 농담 같은 주문이 있다. 이는 여전히 가정 내 남성의 역할을 경제활동에 국한하고, 여성이 그 외의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믿음의 발산이다. 다만 이를 전복시켜 차은경이 경제력 있는 남성, 남편은 가정을 돌보는 여성의 역할로 재분배한 것뿐인데, 〈굿파트너〉는 차은경에게 가정 파탄의 계기라는 무리한 부담을 지운다. 자녀가 그로 인해 부모와 적절한 유대 관계를 쌓지 못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한다는 죄악감은 덤이다.

이는 여성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제 활동을 하는 역할보다 여전히 가정에 종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구시대적 시대관일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지나친 역할을 배분하는 가부장적 가치관에 편승하고 '일하는 여성은 가정 내에서는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양산한다. 또한 내연녀와 차은경의 대

척 관계에 초점을 두며 흔히 말하는 '여자의 적은 여자' 공식을 공고히 하는 스토리는 진부함을 넘어 일종의 여성 혐오 정서까지 포함한다. 극 중 내연녀는 커리어의 성장 단계에 있는 미혼 여성이고, 이는 이미 커리어의 고점을 달성한 기혼 여성인 차은경과 분명하게 대비된다. 여기서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의 갈등 상황을 오직 불륜을 저지른 남성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극 중 내연녀는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해 자신의 방을 갖고 싶다는 소망을 언급했는데, 이것을 캐릭터의 주도적인 성장 과정이 아니라 위계에 의한 단죄 수단으로 치환해 버린다. 차은경이 내연녀를 승진시키고 곧바로 해고하는 장면이 그렇다.

또한 〈굿파트너〉는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남성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지운다. 남편은 스토리의 진부한 연결책에 불과하다. 간혹 튀어나와 자신의 불만과 분노를 표출해 두 여성 캐릭터의 다음 행동을 촉진하는 기능으로만 작용한다. 이로 인해 주 가해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남은 여성끼리 갈등과 해결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돌봄의 공백, 그리고 능력주의 사회의 단면 등 구조적 문제들을 〈굿파트너〉는 오직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축소한다. 이는 여성 혐오를 양산하는 매우 전형적인 접근법이다. 〈굿파트너〉는 10화에서 내연녀를 징벌하는 또 다른 장치로 유산을 택했는데, 이때 내연녀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등장한다. 통상 웨딩드레스의 색으로도 쓰이는 흰색은 순결과 순수함을 상징하며, 그러한 이미지는 기존 미혼 여성에게 부여된 사회적 여성성 중 하나다. 이를 징벌 소재로 사용함으로써 해당 작품은 여성성을 박탈당한 것이 미혼 여성에게 큰 벌이라는 식의 혐오 시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둘째, 〈굿파트너〉는 여성 주연 투 톱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워맨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해당 작품의 기획 의도를 보면 차은경과 한유리를 주축으로 삼았고, 앞서 언급했던 대표 홍보용 포스터 또

한 두 여성 변호사의 투 톱 체제임을 대대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드라마 전개가 지나치게 이성애에 기대고 있음은 분명하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관계적 성장과 일명 '케미'를 기대했을 시청자들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지점이다. 특히 해당 작품 4화에서 비혼주의를 선언했던 한유리가 동료 남성 변호사와 술에 취한 채 인사불성으로 이성적 관계를 맺는 장면은 불필요하다 못해 '한유리'라는 캐릭터의 본질을 훼손한다. 그는 이미 미래의 선택지 중 하나로 결혼하지 않기를 택했다. 그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비이성적인 상태에서 손쉽게 전복되는 방식은 피했어야 했다.

실제로 극 중 한유리가 관계 맺은 것을 자각한 후 곧바로 자괴감에 빠지는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해당 장면은 남녀 캐릭터에 대한 너무나 손쉽고 게으른 접근법이며 시청자들이 함께 성장 중이던 신입 변호사 한유리 캐릭터에 쌓아온 믿음을 농락하는 기만이다. 또한 극 중 한유리라는 인물이 비혼주의를 결심하게 된 데는 부모 세대의 갈등이 큰 요소로 작용한다.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받은 상처가 캐릭터의 내면에 있고, 그것을 암시적으로 동료 남자 변호사에게도 전달한다. 그러나 〈굿파트너〉는 이런 배경을 한유리가 지닌 방어적이고 수동적 언행에 대한 일회용 핑곗거리로 사용한다. 한유리라는 캐릭터의 선택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고 결국은 이성애 주의를 관철시킬 도구로 사용하는 지점은 굉장히 안타깝다. 이성애 중심의 정상 가정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워맨스 관계성을 붕괴하고 캐릭터들을 납작하게 곡해하는 것이다.

비단 한유리뿐만 아니라 차은경의 가정을 그릴 때도 비슷한 시선을 보여준다. 〈굿파트너〉는 부모의 이혼 후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녀를 비추는 방식이 매우 일관적이다. 해당 작품 11화에서는 차은경과 그의 딸 김재희가 자전거를 타는데 어느 부자가 탄 자전거가 추월하는 장

면이 나온다. 김재희가 그것을 부러워하자 이를 눈치챈 차은경은 속도를 내기 위해 무리하다가 결국 자전거가 쓰러져 두 캐릭터 모두 찰과상을 입는다. 함께 캠핑을 가서도, 옆 데크에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텐트를 치는 장면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모습이 나온다. 모든 비교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로 이루어진 '정상 가정'이 기준이 된다.

물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부재는 인물의 상처와 직결될 수 있으니 감정 전개를 위해 필요한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굿파트너〉의 시선은 상당히 단편적이다. 가족 구성원 하나의 부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고정적인 역할의 부재로 상황을 연출한다. 자전거 페달을 빠르게 밟을 수 있고 가정의 나머지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관념적인 '아버지'를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로 이혼 가정을 비춘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은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차은경이 거듭 무리하여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실패하는 장면이 그렇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자녀는 상처를 받고 남성의 부재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만든다. 전개상 후반부에는 당연히 조금 더 안정적인 가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특정 가정 구성원의 부재를 극복 혹은 재건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은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 이는 정상 가정 외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미완의 것으로 취급하는 사회적 시선을 재생산할 뿐이다. 가정의 구성 조건을 이성애에 국한하며 그 외의 범주는 비정상으로 치부하는 것은, 실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형태의 가정에게 무례하고 악의적인 영향을 끼침을 알아야 한다.

셋째, 〈굿파트너〉는 계급주의를 자발적으로 따르며 옹호한다. 인물의 배치가 변호사 위주이기 때문에 전문직의 중상류층 이야기가 많이 노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 외의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한 충분한 고려가 해당 작품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애초에 대형 로펌의 변호

사 수임료를 부담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굿파트너〉에 등장하는 의뢰인의 계급은 한정적이다. 물론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의 소재가 대거 등장해 흥미를 더하고 이야기 전개에 극적인 장치가 설치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중상류층 이외의 계층은 노출 빈도가 적은 만큼 자연스럽게 그들의 이야기는 배제된다. 흔치 않게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가끔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 예로 해당 작품 5화 중, 산골에 사는 위장 이혼 부부가 그러하다. 부부는 위장 이혼을 하고자 로펌에 의뢰를 했으나 이후 시간이 지나고 성공 보수를 요구하는 변호사들에게 돈이 없다며 선처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중 아내는 변호사에게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건네며 자신들의 사랑을 강조하고, 혹시 죄가 있다면 본인이 감옥에 가겠다고 말한다.

이 장면은 한유리 변호사가 부부의 채무자 집행 재산을 공란으로 보고하기로 결심하면서 새롭게 각성하는 시퀀스로 연결된다. 이는 그동안 드라마가 조망하지 않았던 계급이 오직 전문직 계급의 정서적 각성을 위한 장치로 소모되고, 변호사라는 전문직 계급의 시혜적 태도로 산골 부부와 같은 이들의 삶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극 중 로펌의 구조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주요 인물들이 일하는 장소이자 사건 대부분이 발생하는 로펌 사무실은 복층 형식의 특이한 인테리어를 보여준다.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는 위층에는 파트너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직 인물들이, 아래층에는 그 외의 실무진이 위치한다. 애초에 해당 작품은 첫 시작부터 차은경이라는 인물의 위계와 서열을 드러내기 위해 계단을 오르며 직원들에게 우러름과 인사를 받는 모습을 트래킹 숏으로 보여준다. 변호사 계급은 반 층 위에 서서 나머지 직원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점유한다. 이는 능력주의와 계급주의를 단적으로 드러낸 예시이며 두 계급 간의 정서적, 물리적 거리감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내연녀인 직원은 승진을 하여 자신의 방을 갖는 것이 소망이라고 했다.

이렇듯 계급에 따라 특정 계급이 하위 계급을 손쉽게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것에 모두가 복종해 그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다른 계급으로의 이전을 꿈꿔야만 하는 배치가 매우 노골적이다. 다양한 세대와 계급을 아우르고 공감하며 논의를 펼쳐야 하는 매스미디어로서는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굿파트너〉에서 피해자에 대한 초점을 과도하게 맞추는 연출은 어떤 의도를 내포하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해당 작품 12화에서 가정 폭력을 다루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남편이 아내를 물고문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의 폭력적인 장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많은 법정 드라마에서 그렇듯이 사건을 사실적으로 다루기 위해 어느 정도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병행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를 경계하기 위한 논의를 끊임없이 계속해 왔고, 직접적으로 폭력 장면을 삽입하지 않고도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합의를 해오고 있다. 비유나 암시를 통해서도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굿파트너〉는 피해자가 가정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수치스러워하는 모든 순간에 주목한다.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애원하며 물건처럼 끌려 다니는 장면을 낱낱이 포착하고 방영한다. 이는 피해자를 조감하는 가해자의 시선이 발현된 것이며 이러한 연출은 오직 자극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극으로 점철된 장면들은 폭력이 나쁘다는 메시지를 던지기에 앞서, 폭력 그 자체를 노출하는 데 급급하다. 해당 사건이 얼마나 잔혹하고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 온 힘을 다해 살아남으려 했는지를 궁금하게 한다. 이로 인해 폭력의 본질은 흐려지고 피해자성에 주목하게 한다. 이렇듯 연출 후에 남는 것이 피해자의 고통뿐인 포르노적 시선은 매우 부도덕하며, 창작자로서의 윤리의식을 재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물론 〈굿파트너〉는 장르 드라마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여성 캐릭터 투 톱 체제를 택했다는 점은 기성 드라마의 관습에서 벗어나려는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까지 보수적인 우리 사회에서 이혼이라는 소재를 활용해 다양한 휴머니즘 서사를 만들어감으로써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 및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도 보인다. 통상 서사의 결실이었던 결혼을 스토리라인 시작점에 놓으면서 그 이후의 가정 폭력, 방임, 학대 등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묵인되었던 해묵은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결혼은 절대적 성공이 아니며, 따라서 이혼 또한 실패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매 화 반전을 보여주는 엔딩과, 서브플롯과 메인플롯의 유기적인 연결성은 시청자로 하여금 극에 몰입하게 하고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많은 강점은 해당 작품이 높은 화제성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 다만 우리 사회 내에서 여전히 많은 담론을 이어가는 여성 혐오 문제, 계급 간 갈등 문제, 가정의 다양성 문제, 매체의 자극성 문제 등에 대한 심도 깊은 고려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굿파트너〉의 문법에서 배제된 집단의 서사를 탐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게으른 창작에서 벗어나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울림을 줄 수 있는 작품이 탄생하길 기대한다.